

함평군,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 성료 “인력·비용 절감 기대”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위해 사업 추진 수확 시기 인건비 ↑ ... 2024년까지 32억 투입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해보면 대장리 일원에서 지난 8일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위한 양파 기계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파 재배농가, 군청, 농협 등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양파 줄기 절단기 및 자주시 수집기를 이용한 뜬배 수집 과정을

참관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양파의 경우 수확 시기가 6월 초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가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32억원(국비 16억)을 투입,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을 추진해 기계화 면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파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할 경우 관행 대비 노동력은 68.8% 작업비는 46.7%가 절감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파 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위·변조 취약’ 오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받으세요

무안군, 보안성 대폭 강화 신형 무료

무안군은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다양한 위변조 방지 요소를 통해 보안성이 대폭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으로 무료로 재발급한다. 무료 재발급은 보안 미적용 증(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

어짐 등)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이력란 부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3.5×4.5cm)과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무료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고의·과실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귀향인·농촌유학생 살 집 리모델링 해준다

영암군, ‘도시민 생활주택 수리 지원사업’ 공모... 최대 4,000만 원씩 지원

영암군이 귀향인, 농촌유학생과 그 가족 등이 살아갈 ‘2023년 도시민 생활주택 수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영암군의 이번 사업은 도시민 유입, 농촌 활력 등을 위한 취지로 13곳을 선정해 총 5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귀향인 주택

수리 지원사업’은 영암군 전입 5년 내 귀향인의 주택 수리에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곳을 선정한다.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군 내 집에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10곳을 모집하고 수리 후에는 농촌유학생에게 임대하는 조건이다.

각 주택의 리모델링 범위는 창호·도배·장판 시공, 방수·단열 작업, 배수시설 개선 등 포괄적으로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소유 사실 증빙서류 등을 갖춰 이달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7)에서 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 하우스복숭아 수확 현장 격려방문

복숭아 하우스재배 농가 방문... 수확현황 및 애로사항 등 청취

영광군은 지난 7일 하우스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6대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의 일반적인 출하 시기는 7월 이후지만 올해 영광군 복숭아는 시설하우스 내부에서 재배하여 5월 말에 첫 출하를 하였다. 복숭아는 전량 서울 농산물공판장으로 순차적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농가별로 개인선별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에 공동선별

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품질을 규격화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빠른 출하 시기와 크기가 복숭아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영광군은 다른 시설재배 시군들과 비교하여도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하여 빠른 출하와 난방비 절약에 장점이 있다. 과실의 크기 증가 등 재배적인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재배 및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공모

오는 6월 23일까지... 최대 2500만원 지원 총 2개 기관 선정

목포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목포에 활력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목포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투어와 골목길 상권 투어를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 지역 주변 전통시장과 특산물, 지역 관광 명소 등을 연계해 도시재생·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목포시 소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투어’를 주

제로,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탐방·체험 코스를 개발 및 수립해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예산은 1개 프로그램 최대 2,500만 원 지원으로 총 2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3일(17:00)까지로, 공모주제 중복 여부 및 적합성 등 1897 개항문화거리 현장지원센터에 사전 자문을 완료한 후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세한 내용은 목포 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242-009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제4회 섬 간재미축제 수국축제와 함께 개최한다

신안군은 도초도 바다위 수국정원에서 섬 간재미축제를 섬 수국축제와 함께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재미는 비금·도초권 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매년 도초도에서 맛이 전국적으로 뛰어난 수산물 중 하나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간재미축제는 올해는 1004만 송이 수국꽃과 함께 개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신안 간재미는 주낙어범으로 잡아 훨씬 상처가 적고 싱싱하며 식감이 좋아 간재미 무침, 찜, 매운탕으로 인기가 좋으며, 특히 제철에 잡힌 간재미는 단백질 등 영양분도 풍부하여 병 후 회복이나 허약체질에 영양 보충식으로 좋으며, 원기 강화 및 항암작용 등이 왕성하며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에 열리는 섬 간재미축제는 간재미 조형물 제작식을 시작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축하 공연, 간재미 냉두부면 나눔행사, 공연과 미식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미식공연, 수국 꽃길 걷기 행사, 수국 회화전, 수국 사진 경연, 거리공연 등 문화 및 전시 행사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가득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